

## 광주의 민낯...아수라장 된 문화전당



5·18 기념재단과 5·18 단체 회원 50여명이 7일 오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3관(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센터 개소식에서 문화전당 관계자와 만나고 있다. 5월단체 일부 회원은 문화전당 관계자에게 물을 뿌리며 거칠게 항의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센터 개소식 5월단체 회원·전당 직원 30여분 간 몸싸움 '국제 망신' 5·18 흔적 원형 복원 갈등...'제2의 별관 사태'는 막아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MOWCAP) 센터 개소식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관련 기사 3면>  
국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옛 전남도청 원형 훼손 논란으로 대적점에 선 5월 단체와 문화전당 관계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이다. 이 논란이 1년 이상 지속했다는 점에서 조정·중재기능을 상실한 광주의 민낯을 드러냈다.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구속자회·부상자회·유족회) 회원 50여명은 7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평화기념관 3관(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유네스

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MOWCAP) 센터 개소식을 몸으로 저지했다.  
5월 단체 관계자들은 행사장에서 문화전당 직원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고성을 주고 받았다. 연단에 올라 개소식 당위성을 외치던 전당 관계자는 날아든 종이컵과 생수 물줄기를 맞았다.  
행사장은 30여분 동안 아수라장이 됐고 현장에 있던 MOWCAP 의장인 리밍화(Li Minghua) 중국국가기록원장, 김광조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장, 민동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유네스코 및 기록유산 전문가들이 쫓기듯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문화전당측은 행사 장소를 문화전당 컨

퍼런스홀로 옮겨 극소수 인사만 참가한 가운데 개소식을 치렀다. 결국, 광주에서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 개소식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초라한 잔치로 전락했다.  
애초 문화전당측은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센터가 입주할 옛 도청별관에서 행사를 열려했으나, 5월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옛 전남도청 회의실로 장소를 옮겼으나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MOWCAP 센터가 광주에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5월 단체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옛 도청별관 입주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MOWCAP 센터 개소는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유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개소식 과정에서 5·18 단체의 물리적 저지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1년 이상 끌어온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논란을 묵과·방조해온 것을 이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결과적으로 터질 것이 터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5월 단체들은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 본관과 부속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5·18 흔적을 원형 복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5월 단체는 "옛 도청 내·외벽에 있던 계엄군 총탄 자국이 페인트에 덮여 지워졌고, 시민군 상흔실과 방송실이 철거돼 그 자리에 전시공간과 승강기가 설치됐다"며 원형복원을 촉구해왔다.  
반면, 전당 측은 예산확보, 민주평화교류원 개관 장기 지연 등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 양측은 1년 여 대립해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n@kwangju.co.kr

## 호남권 잡월드 순천 확정

### 고용노동부, 최종 선정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잡월드) 입지가 순천으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은 안정적 이용객 확보가 가능하다는 공을 들였지만 유체에 실패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지역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순천시를 설립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잡월드는 총 사업비 485억원(국비 240억원, 교육청 245억원)을 투입, 오는 2018년까지 진로체험관 등을 갖춘 직업체험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호남권과 부산·경남권의 연결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 순천만정원과 습지, 여수엑스포, 에코에듀체험센터 등 가족단위·수확여행 진로 및 체험학습 인프라가 풍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권 잡월드와 관련, 광주는 유치 과정에서 지역구 8석을 석권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전남은 순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교장·교사가 성적·생기부 조작 ▶6면  
그림 편지-화가 정용규의 체코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독자적 대선 플랫폼 만들어 제 3지대서 대선후보 논의”

###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미래 젊은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 강대국의 갈등 속에서 외교 안보가 준비된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권 잠룡들을 모두 만나봤고, 앞으로 만나자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 5면>  
김 전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시대의 당면한 과제가 갈등과 양극화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지금의 현실에서 화합과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적합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인지를 제 3지대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대선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는 없고 자리 욕심만 있다”고 대권 잠룡들을 향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옛날 방식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여권후보 단일화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면서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낼 것인지 방향 제시와 동남아 안보 변화 속에 외교 안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대권 후보들끼리 서로 논의해보자는 것이 대선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제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차기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라기 보다는 이 사회의 분열된 경제 사회 구조를 화합시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면서 “이러한 양극화와 갈등 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 본 적 없다”면서 측담을 피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열린 ‘더민주 전남도당 순천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연수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규칙 아래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 목표”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남북 정상회담·개헌 추진해야”

### 박지원 교섭단체대표 연설

국민의당 박지원(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3면>  
박 위원장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도 살리고,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며 실패하더라도 정상회담 시도 자체만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 주도권을 쥌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자세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으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정치가 바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우수석에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제시했고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할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